

# 권역 재난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전북대병원, 전북도 재난 대응 모의 훈련 참가 현장 재난의료 담당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지역사회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등 권역 재난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역사회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정읍 신태인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재난 대응 모의 훈련에 참가해, 현장 재난의료를 담당했다.



전북대병원은 '지역사회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정읍 신태인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재난 대응 모의 훈련에 참가해, 현장 재난의료를 담당했다.

권역 재난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은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소방 보건소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특화적인 재난의료체계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공공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신태인 실내 체육관 화재 발생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상황전파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재난 상황인 선포되어 현장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도착해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통신체계를 갖춘 뒤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다수사상자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재난상황 종료 후 정읍보건소장의 연론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훈련 상황을 종료했다.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는 "이태원 다수사상자 참사 이후로 지역 사회 재난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북 권역의 재난의료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병원

에서도 재난의료 대응을 위한 공공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라북도 권역 재난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라북도 권역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불법행위 신고 1회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운영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따라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FAX,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전주YWCA에서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2022년도 5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16일 개최했다.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전주시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전주시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한도 조정의 건을 심의하고, 기타 안전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솔루션 사례회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주시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트라우마와 심리적 우울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례회의를 통해 참여기관별 지원 가능한 자원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 우범기 전주시장, 아동폭력 근절 챌린지 동참

#ENDviolence 챌린지 참여... "모든 아이들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전주시 되도록 최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아동폭력근절 온라인 캠페인 '#ENDviolence 챌린지'에 16일 동참했다.

'#ENDviolence 챌린지'는 '분쟁과 재난, 보건' 등에 따른 다양한 폭력 상황에 놓여있는 세계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열띤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가오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해 아동 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유희태 원주군수의 동참 지목을 받았다.

우 시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전주시의회 이기동 시의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을 지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착한 관심'이며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아동폭력근절 온라인 캠페인 '#ENDviolence 챌린지'에 16일 동참했다.

## 전주시설공단, 덕진수영장 고령 이용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시설공단은 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이용객과 공단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16일 진행했다.

이는 구대식 전주시설공단이사장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선 것으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심폐소생술을 이용객과 함께 익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의 이용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단 직

가정한 모의훈련도 병행했다. 직원들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반과 응급환자를 안전한 구역 또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이송반, 인력과 장비 지원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반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훈련에 임했다.

강원원 수영장운영부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용객들의 관심이 많다"며 "안전은 직원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므로 이용객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신중앙시장 현장 지도

완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도에 앞장서며 전동시장 화재예방에 집중 강화를 하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이번 현장행정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동시장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

식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서장은 신중앙상인회 관계자를 만나 전동시장 현황과 애로사항을